매우 윤리적인 서커스 재건기

***

“거지 새끼들 같으니!”

거지 새끼가 투덜거렸다.

이 거렁뱅이의 이름은 잭이었다. 서커스 단장 잭.
잭은 떠나간 단원들의 텅 빈 숙소를 뒤지고 있었다. 침대 밑, 서랍 속, 쓰레기 더미까지. 먹을 만한 것이든, 팔 만한 것이든, 뭐라도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점거한 곳은 '신비한 집시 점술가 펠리나'의 숙소였다.
...아니, 집시가 아니었던가?

잭이 그녀를 "신비한 집시 점술가"라고 소개할 때마다 펠리나는 얼굴을 구기며 덧붙였다.
“나는 로마니야, 등신아.” —라고.
로마-니라니! 잭은 무학력자인 자신을 펠리나가 놀린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내가 무식해도 로마는 나라가 아니라 도시라는 것쯤은 안다고!’

달리 남아있는 건 없었다. 깨진 수정구. 말라붙은 촛농. 바닥에 흩어진 종이 쪼가리. 그리고 취향이 꽤 수상한 연애소설 몇 권....

“앗, 동전!”

잭은 떨어진 동전을 줍기 위해 바닥에 엎드렸다가,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반짝이고 있음을 발견했다.

“응?”

상자다.
작고 묵직해 보이는 나무 상자 하나. 침대 밖으로 끄집어내 보니, 뚜껑 위에 검은 마커로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열지 마시오***]***
[p.s. 특히 잭***.]***
[p.p.s. 남의 방 멋대로 뒤지지 마***,*** 개자식***.]***

“오.”

잭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렸다.
잭은 서커스 단장이 되기 전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직업을 전전했다. 구두 닦는 소년, 신문 판매원, 인쇄공 조수, 면허 발급소 직원, 치과의사(무면허), 정형외과 의사(무면허), 승무원(무면허), 변호사(무면허), 밀수꾼, 굴착 전문가, 탈옥수 수색원(무면허), 수녀, 다시 치과의사(무면허), 기타 등등.

그 가운데는 '자물쇠를 여는 기술'이 필수인 일도 있었다.

"미안하지만 펠리나, 버려진 물건은...."

달각, 달각.

"...먼저 주운 사람이 임자거든.."

달각, 달각.
철컥.

바닥에 떨어져 있던 머리핀 한 개, 약간의 손놀림, 약간의 운.
그 앞에서 잠금쇠는 허무할 만큼 쉽게 풀렸다.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뭐야."

—책이었다.

"시시하네."

잭은 심드렁한 얼굴로 첫 장을 넘겼다.

"최소한 성서나 학술서라면 몇 푼 받을 수 있을텐데.... 망할, 레시피북이잖아."

팔랑, 팔랑, 싸구려 양피지가 바스락거리며 넘어갔다.

- 체액의 풍미를 바꾸는 향유.
- 검은고양이의 호감을 사는 간식 레시피.
- 진흙수프 레시피 (사흘동안 굶은 잭은 진흙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이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이것은 진흙을 수프로 바꾸는 레시피가 아니라 수프를 진흙으로 만드는 레시피였다).
- 그림자에서 뼈를 발라내는 법.
- 난생 처음 들어보는 생물의 요리법.

일반적인 레시피북은 아니었다. 서커스 소품 중에 이런 게 있었던가? 괴상한 제목, 창의적인 각주, 약간은 징그러운 삽화들.
흥미로웠다. 그러나 흥미는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잭이 실망한 얼굴로 책을 덮으려던 순간.

"어."

마지막 챕터명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보조 셰프를 고용하는 법.]

마지막 챕터는 유독 읽기 어려웠다.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 지나치게 많은 주석과 각주, 온갖 경고문.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 삽화까지.

잭은 책의 편집자를 속으로 욕하면서도 꼿꼿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마침내 내용을 전부 이해한 잭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악마 소환 같은 건가?”

‘악마’라!

잭에게 있어서는 콧방귀 나오는 이름일 뿐이다.
그는 십 년 넘게 쇼 비즈니스에서 구른 남자였다. 모든 기적에는 조명 장치가 붙어있으며 모든 귀신에게는 와이어가 달려있음을 아는 남자.

유난히 세세하고 그럴듯한 소환법에 구미가 당기기는 했지만, 결국 쓸데없이 정성 가득한 농담일 뿐이었다.
그에게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이유는 없었다.

“……”

그는 텅 빈 공터를 둘러보았다.
광대도, 곡예사도, 조련사도, 칼 삼키는 남자도 불 뿜는 여자도 없는,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집을.

아무리 그래도,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이유는 없었다.

“……”

자금은 바닥났고 기름이 떨어진 트럭은 움직이지 못했다. 매대를 철거할 인력조차 남지 않아서 소나기를 그대로 맞은 나무 간판들이 순식간에 곰팡이로 뒤덮여버렸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믿을 이유는...
믿을 이유는....

“……”

...서커스 단장은 마지막 챕터를 다시 한 번 읽어내렸다.

***

소환은 생각보다 쉬웠다.
잭은 빈궁한 남자였으나 세 가지 재화에 있어서는 아주 풍족했기 때문이다: 자유 시간, 기이한 잡동사니들, 그리고 어거지 편법을 찾아내는 잔머리.

소금과 약초는 주방에 있었고, 처녀의 피는 매미 유충의 것을 사용했다.
원숭이의 손가락이나 문어의 심장 따위는 평범한 미국 시민이라면 조금 당황스러웠을 재료였지만, 잭에게는 ‘잭의 놀랍고 신비로운 신화 동물 동물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컨테이너 트럭이 하나 있었다.

그 안에는 원숭이와 숭어를 꿰매 만든 인어 박제, 머리에 플라스틱 뿔을 붙인 조랑말,
'화성인'이라는 팻말이 붙은 말린 문어 따위가 가득했다.

오후가 지나기도 전에 잭은 필요한 모든 재료를 늘어놓을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재료만 빼고.

“잠깐만, 마지막 재료가....”

황금.
마지막 재료는 황금이었다.

잭은 사용설명서를 끝까지 읽기도 전에 행동부터 시작하는 제 바보 같은 습관을 자책했다.
황금이라니! 이것만큼은 아무리 트럭을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잭은 한참 동안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한숨을 푹 내쉬고
공구함에서 작은 펜치를 꺼내 들었다.

“젠장할...!”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잭이 몸을 움찔 떨었다.
47번 어금니. 금으로 씌운 넓적한 이빨 하나가 펜치 끝에 매달려 핏물을 뚝, 뚝 흘리고
있었다.

“좋아.... 망할, 생각보다 엄청 아프잖아.”

습관적으로 악문 이에서 피가 배어 나왔다.

“만약 이게 헛짓거리라면....”

소금으로 엉성하게 그려진 소환진. 잭은 그 한가운데에 피묻은 금니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내 인생은 진짜로 망한거야.”

잭은 가죽 책에 적힌 알 수 없는 문장을 읊어 내려갔다. 라틴어인지, 루마니아어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인지. 알 수 없는 문장이 그의 쿠바 억양을 타고 흘러나왔다.

첫 문장은 굉장히 어색했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혀끝이 따가워졌다.
다섯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촛불이 녹색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 ...오.”

잭은 잠시 주의를 빼앗겼다가 다시 주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문장은 유독 읽기 괴로웠다.
여덟 번째 문장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훑고 지나갔다.

열 번째 문장부터는 컨테이너 벽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열두 번째 문장에서는 모든 잡음이 사라졌다. 귀뚜라미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열세 번째 문장을 읊은 순간—

두근, 두근.

소환진 위, 말라비틀어진 문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원숭이의 손가락이 주먹을 쥐듯 오므라들었다.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거센 바람이 불어와 공간을 가득 채웠다.

“ ……!”

잭은 의식을 멈춰야 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책에는 열네 번째 문장이 없었다. 잭이 운전대를 쥐고 있던 도로는 이미 끝났다. 수레는 막다른 길에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듯, 이제 목적지를 향해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집시…. 아니, 로마니 여자.”

촛불이 미친듯이 흔들렸다. 불꽃이 아닌 촛대 전체가 일렁이는 기이한 흔들림. 그러나 불꽃이 꺼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더더욱 크게 불타오를 뿐이었다.

“진짜 마녀였나?”

바닥이 거대한 짐승의 흉곽처럼 우르릉거리며 울렸다. 소환진의 중앙에서 유황 냄새와 함께 거대한 불꽃이 치솟았다.

“…그럼 복권 번호나 알려줄 것이지!”

불꽃이 잭의 시야를 집어삼켰다.

***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이었다. 아주 많은 눈알들.
몇 개는 가로로 깜빡였고, 몇 개는 전혀 깜빡이지 않았으며, 몇 개는 심연 속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본체라고 부를 법한 존재는 눈들보다 한 박자 늦게 나타났다. 어찌하여 몸뚱이가 눈알보다 한 걸음 늦게 등장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었으나, 이 상황에 도형적 합당성을 묻는 것은 쓸데 없는 일이리라.

“이건……”

누군가 현실이라는 장막에 사람 모양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형체였다. 그 구멍 안에는 희끄무레한 눈과 이빨, 그리고 온갖 해부학적 오류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 이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형체는 되려 명확성을 잃어갔다.
뿔의 유무, 눈동자의 색, 손가락의 개수, 입꼬리의 휘어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방금 언급한 신체 부위들이 정말로 그 몸에 붙어 있기나 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눈 앞의 형체를 이해하려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한 가지 사실만이 자명해졌다.

「두려워 하—」

"—마케팅에 최악이잖아!"

「……라.」

"하아…."

젊은 서커스 단장은 열등생의 과제물을 평가하는 미술 선생님처럼 측은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 어떡하냐…."

「…….」

"죄송한데, 혹시, 음…. Sir? Ma'am? 가능하면 좀 더…."

그는 손가락을 딱딱 부딪치며 적당한 단어를 골랐다.

" …르네상스 풍은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악마'에게도 미간은 있는 모양이었다. 그것이 미간을 찌푸렸다는 인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시잖아요, 그.”

잭은 검지 손가락을 제 이마에 대고 뿔을 흉내내며 말했다.

“뿔이랑. 날개랑…. 가능하면 뾰족한 꼬리도 있으면좋겠는데.”

「……」

“지금도 나쁘시다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것 참…. 사진을 잘 받는 타입은 아니신 것 같으시군요.”

「……」

“요즘 서커스는 동반 촬영이 진짜 돈벌이라서 말입니다. 알아요, 알아. 참 좋지 않은 유행이지요. 서커스의 꽃은 공연 티켓이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렇지만 시대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은 짐승이 천천히 눈앞의 인간을 훑어보았다.

“너무 검은색인 것도 좀 그렇네요, 인종 은유 같아서. 흑백 사진으로는 그냥 덩어리처럼 보일 겁니다. 빨간색은 안 될까요? 진홍색 말고 루부통 레드 느낌으로.”

잭은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눈 앞의 상품을 개선할 아이디어들에 잔뜩 흥분한 상태였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가되, 너무 성경적이지는 않게. 무섭기는 한데 뉴스 1면에 실려도 딱 적당할 정도로만 논란이 될 만큼 무섭게. 느낌 아시죠? 가능하면 팝콘 포장지에도 붙이고 싶거든요! 그렇지, 키를 엄청 크게 하면—”

떠벌거리던 입이 멈췄다.

“음….”

잭은 가능한 한 예쁘게 웃어보이며 두 손을 비비 꼬았다.

“…그거 혹시 기분 안 좋을 때 짓는 표정이신가요?”

「……」

악마에게 표정은 없다.
그러나 서커스 단장이 떠벌거릴 때마다 조금씩 돌아가던 눈 많은 머리가, 어느새 180도로 뒤틀려 꺾여 있었다. 마치 얼굴이 있을 공간에 블랙홀이 떠올라있는 것 같았다.

“……하하.”

「네가 나를….」

컨테이너 박스 전체가 그 한마디에 떨렸다.

「...구경거리로 부르기 위해 불렀나?」

잭은 웃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더욱 크게 미소지었다. 방금 뽑은 생니 탓에 피가 조금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구경거리가 아니라 '메인 어트랙션'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나으실까요?"

'아니'라고 외치듯이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잭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잭은 서커스 단장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8할은 사기꾼, 2할은 서커스 단장. 즉슨,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물을 달래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라는 뜻이었다.

"오, 설마요, 설마요. 위대한 존재시여! 제가 감히 당신을 인간들의 유흥거리로 여길 리 있겠습니까!"

잭은 즉시 허리를 깊게 숙였다.

"그저 서커스에 도움을 주시길 바라서 감히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설마 진짜 오실 줄은 몰랐는데."

「서커스.」

"아아, 혹시 서커스란 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말이지요."

가늘게 떨리는 손이 찢어진 컨테이너 벽에 그려진 커다란 광대 얼굴을 가리켰다.

"사람들에게 경악을 파는 곳입니다!"

「.....」

"세상이 변했습니다, 위대하신 주인님. 한때 인간들은 굶주림과 역병과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 돈을 냈습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기 위해서였지요."

그는 손을 펼쳤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위대하신 주인님, 인간들의 삶은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굶어 죽는 인간은 너무나 적어졌고, 1달러와 '월그린의 의약품 체인점'만 있으면 웬만한 병은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밤에도 불이 들어오니 사람들은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리석은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잭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실렸다.

"돈을 내고 비명을 지르고, 돈을 내고 악몽을 꾸고, 돈을 내고 구역질을 합니다. 돈을 내고... 신의 끔찍한 실수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흥.」

검은 짐승이 처음으로 흥미를 보였다. 잭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고개를 숙였다.

“정말이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의 주인님, 당신의 영역은 더 이상 인간들의 매 일상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네 기수 중 둘이 이미 아스피린과 마가린에게 졌지 않습니까?”

네 기수는 우리쪽 소속이 아닌데.
—라고 태클을 걸고 싶었으나, 단장의 말솜씨가 제법 듣기 좋았기에 악마는 계속 침묵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위업을 더 많은 인간에게 알리고 싶은 하찮은 종. 저는 북미 전역을….”

계산된 연극적 머뭇거림이 끼어들었다.

“아니, 전 세계를!”

그가 힘주어 외쳤다.

“그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인간들이 당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도록, 악마께 경의를 느끼도록, 그리고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하도록!”

「…….」

“제가 그것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주인님!”

잭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악마의 손등 비슷한 것—잭은 그것이 부디 손등이기를 빌었다—을 붙잡아 가볍게 입을 맞췄다.

「…….」

침묵.
긴 침묵이 이어졌다.

텅 빈 짐승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그 수십 개의 눈동자 중 몇 개가 가늘어졌다.
눈치 좋은 단장은 그것이 절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님을 확신했다.

“하지만!”

잭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자신감 넘치게 검지를 들었다.

“위대한 존재시여,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외양은 다소… 아아, 고리타분하십니다.”

순간 컨테이너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하지만 잭은 이미 입을 열었고, 입을 연 잭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없었다. 악마조차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잭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오히려 너무 무섭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무섭기만 해서는 지갑을…
그러니까, 눈을 열지 않습니다. 먼저 눈길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이 든 대가리든 지갑이든 열리지요. 말하자면….”

그는 장사꾼 특유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 버팔로윙 같은 겁니다! 드셔 보셨나요? 뉴욕 놈들이 얼마 전에 발명한 음식인데, 이게 참 물건입니다. 핫소스에 버터와 설탕을 듬뿍 섞으면 아무리 혓바닥이 타들어가도 먹기를 그만두지 못하거든요. 두 그릇쯤 비우고 정신을 차리면 내장이 지옥불에 타는 것 같아지는데,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다니까요! 불경에 더해진 약간의 어트랙션, 그것만큼 사람들을 빠르게 타락시키는 것이 있을 성 싶습니까?”

잭의 관자놀이에 식은땀이 흘렀다.

「……」

“……”

「……」

“……”

오랜 침묵과 한 바가지의 식은땀 뒤에, 검은 것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

“좋은 아침!”

아침 해가 밝았다.

잭은 소풍날 아침의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빨간 리본으로 정성스레 묶은 고용 계약서를 마치 곰인형이라도 되는 양 품에 꼭 안고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피고용자 서명란에 ‘D’라고 적혀진 빳빳한 계약서였다.

그의 잠자리는 버스 의자 위에 쌓아 올린 찢어진 천막 조각 더미였다. 그곳이 잠자리임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는 잭이 눌러쓴 줄무늬 나이트캡 하나뿐이었다.

“D 씨도 잘 잤어요?”

“잠 안 잔다.”

“진짜요? 그럼 말을 하지. 같이 밤새 카드 게임이라도 했을 텐데. 기념할 만한 첫날밤이잖아요.”

“이상한 단어 쓰지 마라.”

잭은 잠옷을 갈아입고–즉, 나이트캡을 벗었다는 뜻이다– 밤새 셔츠 위에 내려앉은 먼지를 털어낸 뒤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우두둑, 우두둑. 목에서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좋아, 그럼 비즈니스를 시작해볼까."

'D'는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그를 지켜보았다.

악마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염소의 발굽을 단 기다란 다리, 굽이친 뿔, 뾰족한 손톱. 산짐승을 한없이 닮았으나 인간의 형상을 벗어나지 않은 얼굴.
어린아이에게 악마를 그려 보라고 하면 으레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어젯밤의 시커먼 허공을 닮은 것은 이제 두 눈동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벌써 일을 시작할 셈인가?"

"벌써라니!"

잭은 두 팔을 크게 펼쳐보이며 버려진 듯 보이는 서커스 터를 가리켰다.

"시간이라면 이미 충분히 지체했답니다, 친애하는 파트너!"

"나는 파트너가 아니다."

바퀴를 도둑맞은 버스와 픽업트럭. 부서진 티켓 부스. 텅 빈 우리. 기둥이 썩어나간 음식 매대.
잭은 그것들을 마치 제국을 굽어보는 왕처럼 자랑스럽게 둘러보았다.

"자, 우리 자랑스러운 간판 스타. 서커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만한 서커스 단장은 극적인 제스쳐로–잭의 몸짓은 언제나 극적이었으나, 오늘의 그는 유난히 더 그러했다–D를 돌아보았다.

"…공포?"

"바보 같기는, 정답은 팝콘입니다!"

"…팝콘."

"당연하죠!"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바닥에 널부러진 팝콘 매대 부자재를 주워 들기 시작했다.

"세상에 팝콘 없는 서커스가 어디 있겠어요!"

***

잭은 첫 업무에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

[팝콘***: 29***센트***]***

라고 써있던 낡은 간판을—

[구르메 팝콘***: 99***센트 ***(***프랑스산 버터***!)]***

로 고치는 업무였다. 잭은 혼잣말로 “버터 ‘함유’라는 말은 아무도 안 했잖아. 그냥 감탄사인 거지!”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

D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낡은 서커스 터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의 발걸음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낡은 노란색 트럭이었다.
『잭의 놀랍고 신비로운 신화 동물 동물원』

“허.”

출처와 제작자가 의심스러운 물건뿐이었다.
물고기에 원숭이 박제 앞에는 ‘인어’라고 적혀있었고, 글루건으로 사슴뿔을 붙여둔 토끼 박제에는 ‘재컬로프’, 말의 두개골에 분홍색 플라스틱 뿔이 나사로 박혀있는 물건은 ‘유니콘’. 평범한 개 두개골 세 개 앞에는 ‘케르베로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세 개 중 두 개는 개가 아니라 오소리의 것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너구리.

“ …인어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눈앞의 멍청한 잡동사니들을 노려보았다.
곧, 손가락 하나가 들어올려졌다. 날카로운 손톱이 허공에 그어낸 궤적에 따라 무언가가 찢겨나갔—

*[*끼이익*—]*

‘인어’의 울음소리가 적막을 깼다.
그것의 허리에는 더 이상 꿰맨 자국 따위가 없었다. 검은 털은 자연스럽게 은빛 비늘과 섞여 녹아들었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낼 때마다 허리에 자리 잡은 아가미가 뻐끔거렸다.

쾅, 쾅.
그 옆에서는 뿔 달린 토끼가 전시장 유리를 들이받으며 성질을 부리고 있었다. 기다란 석회질의 뿔이 솟아난 두개골에서 6피트짜리 새하얀 말의 몸이 자라나 있었다. 머리가 세 개 달린 개는 너구리처럼 끼르륵거리며 뛰어나와 토끼를 향해 짖다가, 제 꼬리에 주의를 빼앗겨 제자리에서 빙빙 돌았다.

D는 유리 뚜껑을 젖혀 뿔 달린 토끼를 밖으로 내보내주었다.

“자.”

재컬로프는 두 발로 일어서서 커다란 존재를 향해 몇 번 코를 벌름거렸다. 그러고는 깡총깡총 뛰어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사라졌다.

“흥.”

‘전시물’들이 사라진 유리창 안에는 여기저기 철자가 틀린 라벨과 경고문, 면책 조항만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가 잔바람에 따라 팔랑거렸다.

*[*먹이를 주지 마세요*!]*

잭이 꽤나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라벨이었다.
서커스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다.

***

잭은 사과사탕용 캐러멜에 출처와 유통기한이 상당히 수상한 ‘식용’ 색소를 섞느라 바빠서 서커스 반대편에서 일어난 기적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애들은 색깔을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는 이미 눈이 따가울 정도로 새빨간 캐러멜에 ‘식용’ 색소를 한 국자 더 퍼 넣었다.

“FDA 사람들은 애들을 싫어하는 게 분명해!”

무언가가 잭의 무릎을 건드렸다. 잭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밀어냈다.

“나중에.”

‘무언가’는 다시 한 번 잭의 무릎을 쿡 눌렀다.

“지금 바쁘….”

잭의 눈이 꿈뻑였다.

“.....”

재컬로프도 눈을 깜빡였다.

“.....”

잭은 눈 앞의 생명체를 천천히 살펴보았다.
회갈색 털결. 주변의 소음을 따라 움찔거리는 쫑긋한 귀. 벌름거리는 코. 광택 있는 눈동자. 따끈한 살결.

“...미친.”

그는 두 손으로 재컬로프를 떠내듯이 들어올렸다.

“잭 주니어....”

재컬로프가 코로 픽,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것을 본 잭의 웃음소리가 어찌나 크게 터져 나왔는지, 토끼는 짜증 난다는 듯 귀를 뒤로 젖혔다.

“잭 주니어!”

그 순간, 잭의 등 뒤로 땅을 뒤흔드는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를 돌아본 잭의 두 눈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지옥의 문지기 개가 들어왔다.

“오.”

잭이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서 피하자, 녀석은 그대로 달려나가 나무 판자로 된 광대 모형을 톱밥으로 만들어버렸다.

“맹수 조련사가 다시 필요하겠는데! 이번에는 가능하면 사기꾼이 아닌 놈으로.”

잭은 양손으로 케르베로스의 두 머리를, 구멍 난 양말을 신은 오른발로 나머지 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팔이 세개인 조련사가 있으려나....”

정말이지 괴상한 풍경이다.
그러나 젊은 서커스 단장의 두 눈에는 에덴의 동산이나 마찬가지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잭은 제 계약자–그는 인상을 찌푸리고 새 팝콘 간판에 그려진 악마 캐릭터를 구경하고 있었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이것 좀 봐요!”

잭이 극적인 자세로 재컬로프를 들어 올렸다.

“토끼! 근데 뿔이 있어!”

“보면 안다.”

“정말 대단해! 진짜 신비한 생물들이라고요! 세상에, 풀 자국이 없잖아! 내 바느질도! 뭐, 내 바느질은 워낙 솜씨가 좋아서 원래도 거의 안 보이기는 했지만..... 젠장, 저건 또 뭐야. 인어? 인어잖아! 이런, 진짜 수조가 필요하겠는데!”

“시끄러워.”

D는 잭 근처의 통나무에 털썩 걸터 앉았다.

“진짜 대단한데.... 혹시 이걸로 단원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비밀인데, 저희 스태프가 많이 도망갔거든요.”

“그래 보인다.”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이랑, 풍선아트 하는 사람이랑, 곡예사랑, 나이프 던지는 사람이랑.... 좀 섹시한 사람도 필요해요. 티켓 판매대에는 그런 사람을 앉혀야 해서.”

이름 없는 존재의 눈이 가늘어졌다.

“알아요, 알아요. 제가 전부 완벽히 충족하기는 하죠. 특히 마지막 부분을.”

서커스 단장은 악마의 시선이 부끄럽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그렇지만 서커스는 원맨쇼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사회자와 공연자, 두 명은 필요하니까.”

“...내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작정이었지?”

“일단 한달 정도는 원맨쇼로 버티고 있었어요. 굶어죽지 않을 만큼은 손님이 와서.”

“서커스에 원맨쇼는 없다고 들었는데?”

“서커스 말고 다른 퍼포먼스 있어요.”

잭은 어깨를 으쓱하고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건 신이 하는 일이야.”

그것이 잠시간의 침묵 끝에 악마가 내뱉은 답변이었다. 마치 늙은 판사 같은 목소리였다.

“—그렇지만.”

이어진 문장에 토끼의 두 귀가 쫑긋 섰다.

“네가 조달한 재료를.... 개선시킬 수는 있지.”

잭의 눈이 두어 번 깜빡거렸다. 깜빡, 깜빡... 깜빡.

“아!”

동그랗게 떠진 갈색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휘갈겨 적고, 그 밑에 밑줄을 세 번이나 그었다.

“완벽해요! 그거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이해했나?”

“네!”

“네가 네 이웃들을 꼬셔서 나에게. 이.... 악마에게 바치면.”

“네!”

“그것들은 더 이상 본래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음, 원상복구 불가능한....”

“네, 완전히 이해했어요!”

잭은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가장 덜 더러운 정장을 찾아서 수레 속을 뒤졌다.

“.....심려되는 부분은 없나?”

“뭐, 딱히요.”

그는 D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쇼 비즈니스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 정도 각오는 하는걸요!”

***

서커스단에는 끈으로 연결된 나무판자 두 개가 있었다. 사람이 앞뒤로 뒤집어쓰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홍보하는 광고판. 흔히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불리는 녀석이다.

패널 위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점철된 화려한 포스터가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하시나요***?***
박수 갈채를 좋아하시나요***?***
설탕 냄새와 콘도그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 당신을 위한 직장이 있습니다***!***

잭의 환상적인 프릭쇼*:*

- 급여 협의
- 경력 무관
- 숙식 제공
- 새로운 인생 보장
- 고아*,* 부랑자*,* 퇴역 군인 적극 환영*!]*

“완벽해”

***

*“*자아*,* 고용 중*,* 고용 중*.* 잭의 경이로운 프릭쇼에서 새 직원을 고용합니다아*.* 다리 한 짝 없으신 분*,* 보증인 없으신 분*,* 모두 모두 고용합니다아*.”*

수년간 극장 무대에서 단련된 발성이 메인 스트리트를 쩌렁쩌렁 울렸다.

인근 마을은 별로 화려한 곳이 아니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싸고 넓은 땅덩이 정도. 마을은 그것을 샌프란시스코의 사업가들에게 창고며 촬영 스튜디오 부지로 헐값에 임대해주고는 했는데, 덕분에 잭의 서커스 트럭이 한 달 넘게 공터를 점거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었다.

그렇다고 한산한 마을은 아니었다.

점심시간의 거리는 제법 분주했다. 사람들은 베이지색 도시락통과 신문을 옆구리에 낀 채 발걸음을 재촉했고, 우유 배달부는 병이 가득 실린 수레를 낑낑거리며 끌고 지나갔다. 골목 저편에서는 누군가 감자값을 두고 언성을 높였고, 식당 굴뚝에서는 점심 장사의 냄새가 흘러나와 골목을 가득 적셨다.

잭은 이런 군중을 좋아했다.

활동적이고, 바쁘고, 지루하고, 약간 짜증이 나 있는 사람들. 누군가 큰 소리를 지르면 무심코 한 번쯤은 돌아보는 사람들.

그 속에는 잭과 비슷한 차림의 호객꾼들도 여럿 섞여 있었다. 한 명은 ‘선셋 그릴’ 레스토랑의 39센트 점심 특선을 선전하고 있었고, 다른 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라이브 공연을 보여준다는 재즈 클럽을, 또 다른 남자는 새로 방영을 시작한 소프 오페라를 광고하고 있었다.

『빅터 뷰몬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사랑 이야기*!*』

—라는 커다란 문구 아래에, 주연배우 둘보다 프로덕션 사장의 얼굴이 훨씬 크게 박혀 있었다.

“헹.”

잭은 일부러 그 광고판을 향해 콧방귀를 뀌었다.

“역시 TV는 쓰레기들 장사판이야.”

***

“유랑 서커스?”

옥스퍼드 억양의 목소리가 말을 걸어왔다.
지금껏 잭에게 말을 걸어온, 서커스단 구직 희망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목소리의 주인을 그려낼 수 있었다. 잘 다려진 슈트와 반짝반짝한 구두, 금색 손목시계, 비뚜름한 입가에는 질 좋은 시가.

“...좋은 오후입니다, 선생님!”

잭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평소보다 밝게 웃어보였다.

“서커스 단장이신가?”

“그렇답니다, 선생님.”

“기차를 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링글링 형제 같은?”

“오, 저희는 트럭과 버스를 애용한답니다. 전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데에는 그쪽이 훨씬 실용적이거든요. 경이롭기로는 링글링 형제보다 훨씬 낫고 말이지요!”

“경이라....”

남자는 시가를 한 모금 빨더니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그렇습니다, 경이로운 서커스!”

“요즘도 사람들이 서커스에 돈을 내나?”

잭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물론이지요. 안 낸다면 내게 만드는 것이 단장인 제 일이고 말입니다.”

“흐음.”

사내의 작은 웃음에 따라 흰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어떤 멍청이가 그러는지 모르겠네, 테레비라는 발명품이 떡하니 있는데 말이지.”

그는 시가 끝을 손가락으로 툭 털었다.

“CBA에서 이번에 시작한 게임 쇼는 봤나? 금요일 저녁 일곱 시에서 일곱 시 사십 분까지. 전기료를 계산해도 한 번 보는 데 1센트도 안 든다니까! 1센트만 내면 거실에 앉아서 미국 최고의 코미디언을 보고, 노래를 듣고, 퀴즈까지 즐길 수 있지.”

“아쉽지만 저는 TV를—”

그제야 잭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콜롱 냄새가 너무 짙어서 그 너머의 얼굴을 눈치채는 게 오래 걸렸다.

반질반질하게 빗어넘긴 머리.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미소. 시내의 광고판에서 본 그 얼굴이었다.

그 순간, 공교롭게도 시내버스 한 대가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차체 옆면에도 익숙한 얼굴이 큼지막하게 웃고 있었다.

『뷰몬트 미디어가 선보이는 새로운 웃음*!*』

"...오."

잭은 속으로 혀를 찼다.

"뷰몬트 선생님."

"나를 아나?"

'당연히 알겠지' 하는 미소를 지어보이며 남자가 시가를 빨았다.

"모를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말해보지 그래."

그가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서커스가 테레비보다 나은 것이 대체 뭔가?"

잭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하나 펼쳤다.

"세상에는, 아니, 저희 서커스에는 텔레비전으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이 잔뜩 있답니다."

"예를 들어?"

"유리 상자에서는 팝콘 냄새가 안 나죠. 색종이 조각들이 머리 위로 우수수 떨어지는 기분도 없고, 사과사탕의 선명한 빨간색도 느낄 수 없고요...."

그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이야기했다.

"몇년만 있으면 컬리 테레비가 보급화될 거야."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잭은 막힘없이 말을 이었다.

"마술사의 소매 속을 들여다보려고 목을 길게 빼지도 못하고, 광대 분장이 문득 무섭게 느껴지는 현상도 없고, 코끼리가 걸을 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진동도 없고요."

잭의 서커스에는 코끼리가 없었지만 말이다.

“쥐고있던 풍선이 갑자기 터지는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도 없고, 광대 분장 뒤에 눈이 하나 더 있는 걸 발견하는 재미도 없고, 인간대포 발사 후의 매캐한 화약 냄새도 없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칼던지기 묘기가 실패하는 깜짝 사건도 없고, 로프가 끊어지고 곡예사가 추락하는 무편집본의 재미도 없고….”

잭은 계속해서 손가락을 접어갔다. 뷰몬트는 단장의 손가락 숫자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굳이 말로 꺼내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맹수 우리 앞에서 괜히 한 걸음 물러서는 기분도 느낄 수 없고, 객석 아래로 무언가가 스쳐지나가는 놀라움도 없으며, 칼 던지기 광대가 실수하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도, 무대의 사자가 당장 미쳐서 내 머리를 먹어버릴지 모른다는 감각도, 공연이 끝난 후 객석의 기묘한 적막감도 느낄 수 없고….”

잭은 열여덟번째 손가락을 접으며 환하게 웃었다.

“…무대 위에 악마가 나타났을 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할 수도 없지요!”

“……”

“마지막 부분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말입니다.”

뷰몬트의 입에서 시가 꽁초가 툭, 떨어졌다.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잭은 자켓 소매를 가다듬으며 예의바르게 웃어보였다.

“팜플렛 한 장 받아가실래요?”

***

서커스란 예로부터 특정 인간들을 끌어들이는 직업이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바쁜 도심에는 으레 그런 이들이 한 바가지씩 굴러다니는 법이다.

덕분에 해가 오렌지빛으로 물들기도 전에 쉰 명 넘는 후보들에게 명함을 돌릴 수 있었다.
겸사겸사 지갑도 여덟 개는 훔쳤고 말이다.

“돈 내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돈 받아가려는 사람들은 아주 쎄고 쎘구만!”

잭은 툴툴거리면서 공터로 찾아온 지원자들을 환영했다.

문전성시, 문전성시. 전례 없는 문전성시였다. 숙식 제공. 경력 무관. 2주마다 새로운 마을로 여행하는 방랑 직장. 경범죄자와 빚쟁이, 양육비를 피해 도망 다니는 젊은 건달들에게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직장이었다.
…그들 역시 잭에게 있어 아주 꿈만 같은 후보였고 말이다.

아침에 한 명.
점심에 두 명.
저녁에는 다섯 명.

지원자가 올 때마다 잭은 활짝 웃으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전담 변호사’의 서명이 이상하리만치 잭의 서명과 닮은 계약서였다).
서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잭은 그들을 커다란 트럭으로 밀어넣었다. “여기서부터는 제 파트너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외치며.

지원자가 걸어 들어간다. 트럭의 문이 닫힌다. 잠시 침묵.
문 너머로 약간의 뭉개진 비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어지는 몇 분간의 으적거림. 다시 침묵.
그 후에는, 쨘. 계약이 완료된 새로운 일꾼이 뒤뚱뒤뚱 걸어나오는–가끔은 질질 기어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잭은 기쁨에 겨워 박수를 짝짝 쳤다.

차력사를 자처한 늙은이는 키가 4피트나 더 커져서 걸어 나왔고, 가수로 지원한 니코틴 중독자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물고기 꼬리를 달고 나왔으며, 맹수 사육사에 지원한 투견장 도박꾼은 세 개의 팔과 개의 대가리를 달고 다섯 발로 뛰어 나왔다.

“멋져, 정말 멋져!”

잭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특히나 광대들을 좋아했는데, 그들은 더이상 값비싼 분장 따위 필요 없는 얼굴이 되어 있었다. 저물지 않는 찢어진 미소와 둥그렇고 새빨간 코.
다른 직장에는 평생 취직하지 못할 얼굴이었지만, 서커스에는 이보다 완벽할 수 없었다.

필요한 단원을 모두 채우고도 지원자가 남았다.

“코끼리!”

잭이 눈을 반짝였다.

“남은 지원자로는 코끼리를 만들면 진짜 완벽할텐데!”

“네 트럭이 먼저 무너질 거다.”

짧지 않은 실랑이 끝에, 마지막 지원자는 물개가 되었다.
구슬같이 반짝이는 코에 옴죽거리는 주둥이, 조금 짧은 지느러미가 아주 귀여운 물개였다.

잭은 녀석에게 팔랑거리는 목 장식을 달아주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너무 귀여워…!”

물개는 두 앞지느러미를 모아 싹싹 비비며 그를 올려다 보았다.

“아이구, 똑똑해라. 벌써 재주를 부리네.”

잭은 흐뭇하게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는 물개의 앞지느러미를 붙잡고 짝, 짝, 박수 치는 흉내를 시켰다.
그러나 물개는 박수 따위 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두 손을 싹싹 빌기만 했다.

“아니라니까! ...뭐, 이것도 나름 귀엽네.”

잭은 세상 누구보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했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플래피’야.”

플래피의 앙증맞은 지느러미 뒤로, 예순네살 먹은 전과 3범 남자의 취업 지원서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갔다.

***

잭은 살면서 이토록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늘어난 서커스 단원들이 트럭을 고치고, 천막을 다시 세우고, 페인트를 칠하고, 잡초를 뽑았다. 잭이 그동안 혼자 끙끙거리던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가고 있었다.

그동안 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커스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해변용 의자를 펼쳐 놓고 느긋하게 드러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개당 40센트에 파는 싸구려 선글라스, 손에는 가장 비싼 와인 한 병. 무려 리터당 60센트짜리 물건이었다. 심지어 잔 위에 작은 칵테일 우산까지 꽂혀 있었는데, 잭의 기준으로는 부의 정점이나 다름 없는 상징물이었다.

“하아....”

그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른쪽 겨드랑이에는 북실북실한 뿔토끼가, 왼쪽에는 매끈한 물개가 몸을 비비고 있었다.

“이게 행복이지.”

따뜻한 털과 차가운 가죽이 양옆에서 손바닥에 감겼다.

잭은 눈을 감은 채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아니, 마시려고 했다. 잭의 머리 위로 갑작스럽게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선글라스를 코끝까지 내려 한쪽 눈으로 위를 올려다봤다.

D.
커다랗고 뾰족한 형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 …왜요?”

“할 얘기가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목소리는 아니었다. 잭은 칵테일 우산을 만지작거리며 슬그머니 눈치를 살폈다.

“ …이거 다 마시고 얘기하면 안돼요?”

“안 된다.”

“으으으으으.”

젊은 단장은 눈을 굴리며 죽어가는 소리를 냈다. 세상 모든 억울함을 담은 신음이었다.

“알았어요.”

그는 토끼와 물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이번엔 또 제가 뭘 했는데요?”

“‘이번엔’?”

“네? 아, 당신한텐 아직 뭐 안 했구나. 죄송해요, 습관적으로.”

악마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아무래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고르는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힘을 과잉 사용했을지 모른다.”

“당신이요?”

“그래.”

“당신 혹시 되게 약한 악마였어요?”

잭은 곧바로 자신의 내장이 누군가의 손에 움켜쥐어진 듯한 감각을 느꼈다.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재미없는 농담 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을 가지고 노는 건 그렇게 싼 일이 아니야.”

내장 사이에 얽혀있던 손가락이 순식간에 스르륵 사라졌다.

“휴우….”

“네 영혼은 그다지 값나가는 물건도 아니고.”

“무례하시네요.”

“그럼 악마가 예의 바를까?”

“그건 그렇군요.”

“고백하건데….”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내가 조금, 네게 휩쓸렸다.”

“제가 그런 재주가 좀 있죠.”

“너는 꽤 흥미로운 인간이다.”

뿔달린 것이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 역시 이 소꿉놀이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말았다. 의도치 않게 말이야. 한 제국의 주인에게도 이렇게나 많은 소원을 이루어준 적은 없다.”

길고 뾰족한 손가락이 잭의 이마를 가볍게 눌렀다.

“첫 공연.”

“…….”

첫 공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투자한 가치가 증명되지 못한다면.”

잭은 천천히 칵테일 잔을 내려놓았다.

“계약은 즉시 종료다.”

“즉슨….”

D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다란 검지손가락을 들어 잭의 목을 아주 가볍게— 슥, 스치고 지나갔다.

손끝이 스쳐간 자리에 피가 송골송골 맺히더니, 기다란 절취선처럼 목을 붉게 물들였다.

***

그랜드 오프닝 일주일 전.

잭은 공터 한가운데 괴물을 세워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꽤나 훌륭한 작품이었다. A1 용지 위에서도 느껴지는 거대한 체구. 길게 뻗은 네 장의 날개.
어딘가 천사를 닮았지만, 본능적으로 눈을 떼고 싶어지는 얼굴.
흉근과 복근이 실제보다 다소…. 노골적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사진 같은 실력이었다.

“어때요?”

“그림을…. 그릴 줄 아는군.”

“당연하죠.”

잭은 붓을 빙글 돌리며 콧방귀를 뀌었다.

"원래 인쇄소에서 일했거든요. 풀타임 일러스트레이터 제안도 받았었다니까요."

“그런데 거절했나?”

“더 돈이 되는 일을 찾아버려서.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것저것 꼬였다고 할까…. 아이, 좀 복잡해요.”

별로 미련 없는 목소리였다.
잭은 그림 아래 붉은 물감을 듬뿍 묻혀 큼지막한 글씨를 적었다.

[잭의 경이로운 프릭쇼***!]***
[인간이 보아서는 안되는 광경을 목격하라***!]***

그는 붉은 글씨를 잠깐 바라보다가,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넣어 덧붙였다:

[100% 진짜***!]***

“구려.”

“쓥. 전문가는 접니다.”

***

그랜드 오프닝 사흘 전.
잭은 마지막 비상금 6달러를 탈탈 털어 마을 곳곳에 전단을 뿌렸다.

[공개 리허설***,*** 입장료 단돈 ***10***센트***.]***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단 하루만 여는 홍보 공연이었다.
단돈 10센트짜리 리허설. 그러나 무대만큼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었다. 그 어떤 값비싼 서커스와 견주어도 손색없을 공연이었다.

박수갈채를 받아야 할 묘기들이 쉼 없이 이어졌다.

팔 셋 달린 곡예사는 천장 끝까지 뛰어올라 거미처럼 천막을 기어다녔고, 물고기 꼬리를 단 가수는 사람의 목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화음을 쌓아 올렸다. 광대들은 한 번도 분장을 고치지 않았고, 맹수 조련사가 손가락을 튕길 때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객석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좋아."

잭은 팔짱을 낀 채 무대를 바라보았다.

광대가 넘어졌다.
관객이 있었다면 분명 웃음이 터졌을 타이밍이었다.

곡예사가 허공을 걸었다.
관객이 있었다면 숨을 삼켰을 장면이었다.

물개가 라틴어로 시를 암송했다.
관객이 있었다면, 관객이 있었다면….

"……."

공연이 계속될수록 그의 미소는 조금씩 옅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다. 이번에는 정말이다. 이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연이다.

그렇지만….

"……."

공연은 예정대로 흘러갔다.
정확히 70분. 70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경이로움만이 이어졌다. 마지막 무대의 주인공인 저글링 공연자가 두 팔을 활짝 벌렸다. 붉은 막이 내렸다.

박수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잭은 천천히 객석을 돌아보았다.
나무 의자 여든 개. 지난 밤 열심히 닦고 기름칠한 여든 개의 의자 위에, 벌써 새로운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천막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

그랜드 오프닝 이틀 전.

잭은 터벅터벅 마을로 걸어 내려갔다. 늘 가던 술집, 3번지 가장 안쪽의 '불타는 바퀴' 집으로.
싸고, 시끄럽고, 갓 삶은 강낭콩을 안주로 내주는 괜찮은 술집이었다. 맥주 한 잔에 10센트, 리필은 7센트.

잭은 카운터에 털썩 앉아 뜨거운 강낭콩을 하나 입에 던져 넣었다.

"...머저리들."

우물우물.

"신경도 안 쓴다고, 머저리들!"

우물우물.

"젠장."

바텐더는 익숙하다는 듯 술을 다시 따라 줄 뿐이었다.

잭에게는 이 술집에서만 보는 술친구가 하나 있었다. 피터. 어쩌면 폴. 아니, 존이었나? 부둣가에서 일한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는 남자였다. 햇볕과 소금바람에 피부가 가죽처럼 쪼글쪼글해서 쉰인지 일흔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서로 멀쩡한 정신으로 대화해 본 적도 거의 없었다.

피터-폴-존은 잔을 굴리며 코웃음을 쳤다.

"네 공연이 쪽박 차는 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쫑알쫑알 시끄럽기는."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진짜 다르단 말이야. 정말 괜찮은 동료들이 생겼다고.... 거물 투자자가 붙어서...."

"거물 투자자? 네가 그런 걸 어디서 잡았어?"

"으응, 침대 밑에서...."

"기어코 거기까지 갔구나."

“아니,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번 공연은 정말.... 정말로 멋졌거든. 진짜로 진짜였어. 거짓말 같은 거 한 개도 없는 진짜 쇼였다고...."

“흐음.”

“이번에는 거짓말 안했는데. 진짜 안 했는데.”

잭은 뜨거운 강낭콩 하나를 포크로 푹 찔렀다.
술친구가 잔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래서."

잭이 술병을 쾅 내려놨다.

"최선을 다했으면 성공해야 하는 거잖아!"

"....."

“이번에는 진짜란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 했단 말이야, 이번에는 장난질하지 않았단 말이야!”

유리 속의 거품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켰다가 파스스 사라져버렸다.

“농담이나 바보짓은 실패해도 괜찮아. 진지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해도 슬프지 않아. 그렇지만, 그치만 말이야, 정말 진지하게 했는데도 실패하면.... ”

피터-폴-존은 바텐더에게 냉수 한 잔을 부탁하고 잭을 자리에서 일으켜 부축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

잭은 새벽이 끝나갈 무렵에야 다시 거리로 나왔다.

아직 취기가 남은 머리를 긁적이며, 안팎이 뒤집힌 바지를 대충 추슬러 입고 피터-폴-존의 집을 절뚝절뚝 빠져나오던 길이었다.

"이봐."

누군가 낡은 셔츠깃을 움켜쥐었다.

잭의 발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더러운 코트를 걸친 거구의 남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뒤에는 조금 작은 덩치의 사내 둘이 더 서 있었다. 셋 다 바닷바람에 절은 얼굴.

해군 출신이군. 질 나쁜 부류야.

잭은 멍한 머리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사분들?"

"나 기억 안 나?"

"오, 제 옛 애인이신가요? 제가 연애를 좀 많이 해서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잊었을 리는—"

"포틀랜드에서 네놈이 돈 떼먹고 튄 사람이다."

"...그것도 가능성이 꽤 있네요."

잭은 눈을 깜빡였다. 취기에 젖은 한쪽 눈꺼풀이 다른쪽 눈보다 살짝 느리게 감겼다.

그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유랑 서커스단 단장이라는 직업은 급하게 친구를 사귀고, 급하게 돈을 빌리고, 더 급하게 다음 마을로 도망치기에 썩 적합한 직업이었으니까.

하필이면 포틀랜드에서 돈을 빌려줬던 해군이 이 근처 항구로 들어온 모양이다. 운도 없지.

"근데 제가 포틀랜드에서 돈 빌린 해군이 좀 많은데. 혹시 성함이라도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에이미? 존슨? 마리안? 아니면 예전에 안경 쓰셨—"

퍽.
묵직한 주먹이 복부를 파고들었다.

"억...!"

잭은 반으로 접힌 몸을 추스리며 마른기침을 몇 번 토해냈다.

"좋아, 이제 좀 기억이 나네요. 이거 맞아본 기억이 있는데."

"나한테 50 달러 빚졌어."

"오, 그건 꽤 큰돈이네요."

남자는 그의 멱살을 더 높이 들어 올렸다.

"드릴게요, 금방 드릴 게요. 진짜로."

잭은 입가에 흐른 침을 손등으로 훔쳤다.

"이자까지 두둑히 얹어서 드릴게요. 제가 있죠, 새 공연을 준비 중이거든요."

취기와 고통으로 떨리는 손끝이 서커스 트럭이 있을 방향을 막연하게 가리켰다.

"완전 대박이 날 겁니다. 이 나라 최고의 쇼가 될 거예요. 그것만 끝나면 이자를…. 그래, 월복리 6.2%로 계산에서 갚아드릴게요."

그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요즘 이런 금리 찾기 힘들어요, 아시죠? 중앙은행 녀석들이 아주—"

거한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잭의 손끝이 아니라, 팔을 들어 올리며 벌어진 재킷 안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이것 좀 보게."

굵은 손이 주머니 안으로 쑥 들어갔다.

"어?"

잭의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봐, 잠깐. 잠깐만요, 선생님!"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뺏어들었다.
정성스레 접힌 포스터였다.

우악스러운 손이 종이를 펼치자, 화려한 활자와 정교하게 그려진 악마의 초상이 어두운 골목에서도 선명하게 살아났다.

"허."

포스터는 얼마 전보다 훨씬 화려해져 있었다.
혹시 그림이 문제였던 걸까. 홍보 문구가 문제였던 걸까. 잭이 밤을 꼬박 새워 고쳐 그린 덕이다. 색을 더 진하게 덧칠하고, 금박 종이를 잘라 붙이고, 제목의 활자를 몇 번이나 새로 써내려갔다.

"이걸로 내 돈을 갚겠다고?"

거한은 어이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의 친구들도 뒤따라 웃음을 터뜨렸다.

"요즘도 이런 사기극이 먹힐 거라 믿는 놈이 있네."

"사기 아닙니다."

잭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번에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이번에는 달라요. 정말로,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래, 그렇겠지!”

“그렇다고요!”

잭은 다급히 손을 뻗었다.

“도로 내줘요, 그게 있어야 빚을 갚을 것 아닙니까.”

거한은 포스터를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제 물건을 되찾으려고 아둥바둥 뛰어오르는 잭을 보며, 세 남자는 초등학교 골목대장들처럼 왁자지껄 웃어댔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그거 원본입니다. 인쇄소에서 복사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망가지면 빚을 빨리 못 갚을 것 아닙니까. 장난 그만하시고 이제….”

대답 대신, 거한은 포스터를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저, 저기요.”

잭이 황급히 손을 뻗어 포스터를 되찾으려 했다.
그러나 간신히 붙잡은 것은 귀퉁이뿐. 찌익. 손안에는 찢어진 종잇조각 하나만이 남았다.

“잠시만요…!”

남자는 천천히 손아귀를 움켜쥐었다.
두껍고 빳빳했던 포스터가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내며 어린아이 주먹만 한 종이뭉치로 찌그러졌다.

“잠시만요!”

거한은 웃으며 손목을 휙 털었다.
종이뭉치가 허공에서 짧은 포물선을 그렸다. 그리고는 퐁당,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안—”

잭은 반사적으로 강에 몸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작은 해군 하나가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그대로 뒤로 잡아당겼다.

퍽.

갈비뼈를 노린 주먹이 깊숙이 박혔다.

“컥…!”

숨이 턱 막혔다. 잭은 허리를 반으로 접은 채 헛기침만 토해냈다.

"잠깐... 잠깐만요, 선생님. 제가 진짜로—"

고통을 곱씹을 틈도 없이 또 다른 주먹이, 뒤를 이어 또 다른 주먹이 이어졌다. 누군가 뒤에서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세웠고, 다른 둘이 번갈아 주먹을 꽂아 넣었다.

“공연만…. 이번 공연만 끝나면요, 정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잭이 그대로 무릎부터 돌바닥에 처박혔다.

"공연만 끝나면...."

군화 하나가 손등을 밟았다. 뼈마디가 으드득 소리를 냈다.

"아악!"

"닥쳐."

"진짜예요, 이번엔 진짜라니까요...? 속고만 사셨나...."

잭은 피멍이 올라온 얼굴로 가쁘게 웃어보였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듯 하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군화 밑창이 그의 얼굴을 그대로 짓이겼다.

“윽…!”

이번에는 등이 걷어차였다. 어깨가, 얼굴이, 콧등이, 웅크린 두 다리가. 어디가 어디인지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았다.
주먹이 군화가 되고, 군화가 다시 주먹이 되는 동안, 잭은 결국 본능대로 몸을 웅크렸다.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배를 숨겼다. 달아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자세.

웅크린 팔 틈으로 강물이 보였다.
손때가 잔뜩 묻은 포스터가 물살을 타고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붉은 물감을 아끼지 않고 칠했던 원본. 밤새워 그려낸 악마의 얼굴.

알록달록한 종이는 검은 강 위를 이리저리 흔들리며 점점 멀어졌다.
더 멀리.
더 멀리.
마침내 밤의 강물이 완전히 삼켜 버릴 때까지.

“윽!”

딱딱한 군화 앞코가 옆구리를 세게 파고들었다.

"다음부터는 남의 돈 떼먹지 마라, 광대 새끼가."

퉷, 소리와 함께 무언가 축축하고 끈적한 것이 잭의 뺨을 적셨다. 취기에 젖은 웃음소리를 남긴 채 세 해군은 골목 밖으로 사라졌다.

...잭은 아주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혹은, 일어나지 않았다. 구정물이 고인 돌바닥에 몸을 뉘인 채,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볼 뿐이었다.

"……."

포스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젠장할."

눈꺼풀 위에 엉긴 피딱지가 무거웠다.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게 뽑혔었는데."

몸의 힘이 빠졌다. 꽉 쥐었던 주먹이 풀린다.
잭이 꼭 쥐고 있었던 것은 포스터 귀퉁이의 종잇조각. 찢겨나간 종잇조각이 피와 구정물에 젖어 스르륵 돌바닥 위로 떨어졌다.

노랗고 붉은 잉크가 잔뜩 번져 있었지만, 큼지막한 활자만은 아직도 또렷했다.

[...**의 경이로운 프릭**...]

***

악마는 기다렸다.

기다림은 악마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모래와 먼지 밑에서 잠든 채 때를 기다린 기억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기다림은 다르다. 지루했다. '지루'라**!** 참으로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최근 며칠간 '잭'이라는 인간과 함께한 시간이 유난히 시끄럽고 화려했던 탓일까.

이름 없는 괴물은 서커스단 버스 위에 우뚝 선 채, 잭이 사라진 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

얼마나 그렇게 서있었을까. 마침내 그는 버르장머리 없는 계약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딱딱한 육체가 소리 없이 허물어졌다.
형체는 바닥으로 스며들더니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타고 흘러갔다. 가로등 밑으로, 담벼락 아래로, 마차 바퀴가 지나간 자국 사이로.

검은 물처럼 미끄러진 그림자는 어느새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해안가, 이름도 없는 골목 안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잭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에게서는 항상 협잡과 절박함의 냄새가 났으며, 악마란 본디 협잡과 절박함의 냄새를 맡는데에 아주 최적화된 짐승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송로버섯을 찾는 늙은 돼지처럼.

“흠.”

짐승은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잭은 벽에 기대어 뭉개진 종잇조각처럼 구겨져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얼굴 절반을 검붉게 뒤덮고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원래도 넝마나 다름없던 줄무늬 바지와 셔츠는 군데군데 찢겨 이제는 옷이라기보다 붕대에 가까워 보였다.

숨은 붙어 있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 ……”

그는 허리를 숙이고 잭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다.
희미하게 오르내리는 숨소리. 그는 그것을 마치 음악이라도 감상하듯 한동안 가만히 듣고 있었다.

잭이 서커스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낮은 곳의 짐승은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어디선가 또 황당한 사업 구상을 떠벌리고 있다든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든가, 술김에 혁명이라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아 골목에 버려져 있는 모습은...
....
뭐, 사실 그렇게까지 놀라운 경우의 수는 아니었다.

“이봐.”

악마는 발끝—을 흉내 내고 있는 검은 신체기관–으로 잭의 옆구리를 툭 건드렸다.

“으응....”

잭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낼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희박하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협잡꾼의 숨이 죽음에 아주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이 바보 같고 수지 맞지 않는 계약도 끝난다. 남자의 영혼은 계약대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계약이 없었더라도 아마 행선지는 같았겠지만.

영겁의 고통을 대가로 소원을 빌어 놓고, 그 소원이 꽃피우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죽는 인간.
악마에게는 아주 흔한 풍경이었다.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기 직전 암살당한 왕.
세기의 발견을 단 한 장 앞두고 숨이 멎은 학자.
서로를 다시 만나기 직전 엇갈린 연인.
첫 개막일을 앞두고 뒷골목에 쓰러진 서커스 단장.

"……."

이름 없는 악마의 시선이 땅바닥을 향했다. 구정물이 고인 웅덩이 위를 종잇조각 하나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작게 찢긴 조각. 하지만 그 과감한 색상과 붓선은 작은 조각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포스터. 잭이 직접 그렸던 자신의 초상화였다.

[…**의 경이로운 프릭**…]

글자는 구정물에 번져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힘 있게 꺾이는 필기체의 획만은 살아 있었다. 붉고 경쾌한,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을 속이겠다는 의지로 가득찬, 서커스 광고판 특유의 통통 튀는 글씨체.

'서커스….'

이름 없는 괴물이 종잇조각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서커스. 그게 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 인간이 집착하는 걸까.

***

'…내가 왜 걷고 있지*?*'

D는 축 늘어진 인간 하나를 어깨에 둘러멘 채 천천히 길을 걸었다.

실로 비효율적인 이동이었다. 어둠 속에 녹아들어서 몇백 마일을 한 걸음에 움직일 수 있는 존재에게는 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와 계약으로 묶여잇는 반송장 인간을 품에 쥐고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

그래서 악마는 걸었다.
13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몸을 조금도 숨기지 않은 채, 오리건의 대로변을 가로질렀다

아주 오랜만의 경험이었다. 잭의 힘 빠진 모가지가 발걸음에 맞춰 퉁, 퉁, 푹신한 날갯죽지에 부딪혔다.

해는 이미 지붕 위로 떠 있었다. 우유 배달부가 빈 우유통을 수레에 싣고 있었고, 출근길 청년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학교를 향해 떠들썩하게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고개가 하나둘 거대한 인영을 향해 꺾였다.

"엄마, 저—"

"쉿."

십자가 목걸이를 움켜쥔 여자가 아이를 제 뒤로 숨겼다. 그러나 그녀 역시 '저것'에게 시선을 빼앗긴 후였다.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염소 발굽이 보도블럭을 울리고, 굽은 뿔이 꽃집 차양을 가볍게 쓸렸다. 옆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대한 날개가 인도를 점거한 탓에 사람들은 차도로 몸을 내려 그를 피해가야 했다.

아무도 감히 "실례지만 날개를 조금만 접어주시겠습니까?" 라거나, "어깨에 메고 계신 건 혹시 시체인가요?" 하고 묻지 못했다.

"알겠다, 저거 사기꾼 잭이잖아!"

마침내 누군가가 외쳤다.

"공터의 커다란 버스에 사는 미치광이 말이야. 그 녀석의 포스터에서 봤어."

"아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괴물에게서 서로에게로 옮겨갔다.

"그 바보 같은 포스터 말이지, 나도 봤어. 그래, 정말이야. 그림과 꼭 닮았는걸."

"말도 안 돼."

"세상에, 어떻게 만든 거지?"

긴장된 수군거림은 어느새 안도 섞인 웃음으로 변해 있었다.

눈앞의 존재가 진짜 악마일 리는 없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러니 저것은 분장이고, 가면이고, 멍청하면서도 분장실력 대단한 서커스의 홍보물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헛웃음을 흘리고, 괜히 더 큰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아아, 그래, 그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나는 한 눈에 알아봤지, 저 정도 분장이야 한 눈에 알아봤지," 하는 사람들의 수다소리가 짐승의 등 뒤를 따라붙었다.

이름 없는 자는 한숨을 삼켰다.
인간들의 입술을 전부 밀랍으로 바꿔서 붙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첫 공연만 끝나면 이 마을을 전부 불태워버려야겠어.'
.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커스 천막을 향해 걸어갈 뿐이었다.

***

그랜드 오프닝 하루 전.

마을 사람들의 화제는 하나뿐이었다.

‘그 괴물***’!***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기가 그 괴물을 직접 봤다고, 혹은 직접 본 사람을 안다고, 혹은 직접 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안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10피트는 넘었다니까.”

“에밀리의 식당 간판에 뿔이 닿았다고. 그렇다면 적어도 15피트는 될 거야.

“발굽이 돌바닥을 찍을 때마다 길이 쾅, 쾅 울렸어,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가 웅덩이 투성이가 된 거지.”

“메인 스트리트는 원래도 웅덩이 투성이었잖아.”

“정말이지 불경한 분장이야!”

“아주 끝내주는 분장이던데!”

여인들 사이에서는 ‘괴물’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소문이 조용히 번졌으나, 그 이야기만큼은 유난히 목소리를 낮춘 채 오갔기에 대로까지 퍼지지는 못했다.

어찌 되었든,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마을 밖 공터의 낡아빠진 서커스는 어느새 오리건의 작은 마을에서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다.

***

“…….”

그 소문의 주인공은 낡은 여행버스 안에서 반송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

퉁퉁 부은 눈이 간신히 떠졌다.

“…저 죽었어요?”

“아직.”

“눈 앞에 악마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게 내 잘못인가?”

잭은 삐걱거리는 팔다리를 겨우 움직여 몸을 일으켰다.

“오늘 며칠이에요? 토요일에 그랜드 오프닝인데….”

“금요일.”

“젠장, 홍보지 더 돌려야하는데….”

잭은 깨진 거울 조각에 얼굴을 비춰 보며 투덜거렸다. 퉁퉁 부은 볼 때문에 얼굴이 거울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거 못 고쳐줘요?”

“알아서 회복해.”

“내일이 공연인데 완전 이상해보이잖아요!”

“넌… 원래 이상했어.”

잭은 유창한 스페인어 욕설을 중얼거리며 분장실 트럭을 향해 절뚝절뚝 걸어갔다.

***

“응?”

분장실 트럭으로 향하던 잭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담장 너머에서, 아니, 담장 아래에서 작은 소근거림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서커스단 주방의 밀알을 훔치러 다니는 쥐새끼들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숲을 떠도는 들고양이들의 울음소리와도 달랐다. 말을 잃어버린 새 단원들이 내는 인간 같지 않은 웅얼거림과는 더더욱 달랐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 억누르지 못한 즐거움이 잔뜩 묻어나는 웃음소리였다.

“고객님들이야!”

잭의 눈이 반짝였다.

울타리 너머에는 대여섯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많아야 여덟 살 남짓. 그중에서도 가장 어린 꼬마 하나는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낑낑거리며 울타리를 넘고 있었다.

“…작은 고객님들이야!”

마을 아이들이다. 누가 봐도 어른들 몰래 서커스장을 구경하러 숨어든 녀석들.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눈을 반짝이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빨갛고 노란 간판. 캔버스 천을 덧씌워 근사한 서커스 텐트인 척 꾸며 놓은 낡은 트럭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이상한 동물들. 내일이면 손님들이 오기를 바라며 정성껏 매달아 둔 색종이 장식과 깃발들.

잭은 본능적으로—
「어서 오세요, 무단 방문자님들*!* 첫 고객님들께는 특별히 풍선 동물을 개당 ***5***센트 특가에 모십니다*!*」
—라고 외치며 달려가고 싶었다.

아쉽게도 지금의 그는 얼굴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왼쪽 눈은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다. 어린 손님들을 맞이하기에는 다소 살벌한 몰골이었다.

게다가 잭은 만들 줄 아는 풍선 동물이 하나밖에 없었다.
지렁이.
……아이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품목은 아니었다.

다행히도 무단 침입 손님들을 눈치챈 것은 잭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나,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으시죠?”

티켓 부스 담당 직원.
상반신은 단정한 곱슬 금발에 분홍색 샤넬 정장을 차려입은 우아한 여인. 골반 아래부터는 거대한 거미를 닮은 여덟 개의 다리.

여덟 개의 다리는 말보다도 빨랐다. 표를 받으러 갔다가 팝콘을 팔고, 다시 기념품 가판대로 달려가는 식이었다. 각종 부스를 오가는 단원으로는 이보다 더 적합한 인재도 없었다.

아이들은 기다란 여덟 다리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대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다리가 엄청 많아요. 꼭 메뚜기 같아서 멋있어요!”

“벽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야 물론이지요!”

그녀는 완벽하게 연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 자, 자. 이제 조용히 합시다, 꼬마 신사숙녀 여러분.”

아이들은 얼른 입을 틀어막았다. 물론 키득거림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커스에 몰래 들어오시면 안 되지요! 울타리는 이유가 있어서 쳐놓은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몸을 살짝 숙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만약 공연이 있는 날에 이러셨다면, 제가 여러분을 잡아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포동포동한 여러분.”

살구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끝이 꼬마아이의 볼을 콕 찔렀다. 아이들 사이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 ...되게 잘 하네.”

멀리서 지켜보던 잭이 작게 감탄했다.

잭은 그녀의 입사지원서를 기억했다. 이름이 헬가였던가? 아니, 헬렌이다.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서커스단에 지원했던 마흔 살 여인. 새로운 직장 환경에 아주 만족해하는 몇 안 되는 직원이었다.

뭐, 작은 사고가 하나 있기는 했다.

‘새 유니폼’을 지급받은 다음 날 밤, 허가도 없이 서커스장을 빠져나가 마을로 내려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온 것이다.
배는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입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는 채로.

...그것만 제외하면 아주 태도가 좋은 우수 직원이었다.

"저기, 누나."

"네, 뭔가요?"

"혹시 그거 사실인가요? 그...."

주근깨투성이 소년 하나가 가장 크고 화려한 서커스 트럭을 가리켰다.

"여기에 진짜 악마가 있다는 게요."

"오, 물론이죠."

헬렌은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었다.

"진짜요?"

"진짜예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그건 다 분장이래요."

"그렇다면 아버님은 꼭 표를 사셔서 확인하셔야겠네요."

헬렌의 능청스러운 대답에 아이들 사이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졌다.

"우리 내일 꼭 올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녀는 풍선으로 장식된 커다란 입구를 손끝으로 가리켰다.

"...문으로 들어와주세요. 그편이 저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훨씬 적답니다."

아이들은 또 한 번 키득거리며 울타리를 기어올랐다.
아이들이 하나둘 담장 너머로 지는 동안, 헬렌은 계속해서 손을 흔들어주었다. 아이들도 두 손을 흔들며 저 멀리 사라져갔다.
작은 손바닥들이 언덕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헬렌은–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잭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

그랜드 오프닝 당일.

새벽부터 일어난 잭은 파이널-파이널-파이널-파이널 리허설을 점검하며 손톱을 질겅거렸다.

한 손에는 종이 수첩을, 귀에는 노란 연필을 꽂은 채 그는 서커스 트럭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너무 많이 펼쳐 본 탓에 너덜너덜해진 수첩을 다시 펼쳤다.

- 캐러멜 사과는 충분히 빨간가***? :*** ✓
- 팝콘은 충분히 짠가***? (***잭의 장사 팁***:*** 짠 걸 잔뜩 먹여야 사이다를 잔뜩 판다***!) :*** ✓
- 풍선은 충분히 알록달록한가***? :*** ✓
- 고리 던지기는 충분히 조작됐나***? :*** ✓
- 유니콘 타기 체험 가격은 충분한가***?:***

“흐음….”

잭은 유니콘 우리 앞으로 걸어갔다.
등허리에 매달린 팻말에는 99센트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연필로 숫자를 벅벅 고쳤다.

1달러 ***99***센트***.***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 잘생긴 아들.”

[푸히히히힝***.]***

“그래, 바로 그 자세야!”

- 유니콘 타기 체험 가격은 충분한가***?:*** ✓

다음은 신비한 동물 전시장.
잭은 우리 안의 재컬로프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 …….”

재컬로프도 말없이 잭을 바라보았다. 둘은 한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안 되겠어.”

잭은 결심한 듯 우리 문을 열더니 털복숭이를 번쩍 들어 품에 꼭 안았다. 재컬로프는 별다른 저항 없이 그의 품에 폭 파묻혔다.

“넌 오늘 나랑 같이 다니자. 멍청한 고객들은 어차피 네 가치를 못 알아볼 거야.”

줄무늬 정장에 톱햇까지 갖춰 쓴 다 큰 남자가 뿔 달린 토끼를 품에 안고 돌아다니는 꼴이라니. D는 그 꼬라지를 보고 무언가 말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다

대신,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질문을 꺼냈다.

“대체 왜 그러지?”

“네? 아, 토끼는 스트레스를 잘 받는 동물이거든요. 특히 주니어는 처음 살아 있었을 때—”

“아니.”

이름 없는 짐승은 말을 끊고 손을 휘저으며 서커스장 전체를 가리켰다.

“이것 말이다.”

“……?”

“어째서 서커스를 하지?”

“갑자기 되게 철학적이시네.”

“이 기만. 이 노력. 이 위험. 이 집착.”

그것의 시선이 잭을 향했다. 잭은 처음으로 ‘악마’의 눈이 어렴풋한 녹색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너는 내가 본 어떤 인간보다도.... 생존력 좋은 녀석이야.”

“감사합니다.”

“마치 바퀴벌레 같더군.”

“그건 안 감사해요.”

“네놈이라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먹고살았겠지. ...최소한 지금보다는 멋들어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테고.”

“저는 이미 멋있는데요. 범죄자는 아니지만.”

D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왜 이 일을 고집하지?”

“흐음.”

잭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워 붙인 천막. 새로 생긴 (별로 상호동의적이지는 않은) 단원들. 우스꽝스러운 간판들.
그리고 품속에서 얌전히 귀를 까딱이는 뿔 달린 토끼.

그의 미소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오, 잭은 좀처럼 미소를 잃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 입가의 곡선이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을 뿐이었다.

“ ...저도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악마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그냥….”

젊은 단장은 연필 끝으로 무릎을 탁, 탁 두드리며 단어를 골랐다.

“저랑 어울리잖아요.”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었다. 그러나 악마는 굳이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할 것 없는 사실이기는 했으니까.

“뭐….”

잭은 헛기침을 하고는 평소처럼 활짝 웃었다.

“감정적인 얘기는 그만 할까요! 말 거시길래 받아주기는 했는데 솔직히 오글거려서 뭐질 것 같네요!”

“말 조심해라.”

“오늘은 본공연이니까 D도 무대 올라가야 해요. 아시죠?”

청년은 재컬로프의 앞발을 잡고 붕붕 흔들며 가느다란 목소리를 흉내 냈다.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하고.

악마는 한동안 잭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혀를 찼다.

***

공연의 때가 왔다.
손님들 역시 왔다.

서커스의 황금기와 견줄 정도는 아니었다. 애초에 이 작은 마을에서 끌어모을 수 있는 손님이라고 해봐야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오후 시간이 비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모여든 듯했다. 텔레비전 앞이 아니라, 마을에서 1마일 떨어진 화려한 공터로.

티켓 부스 앞에는 제법 긴 줄이 늘어섰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아끌며 칭얼거렸고, 사춘기 소년들은 별로 기대하지 않는 척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서 있었다. 소문의 '악마'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사명감만으로 찾아온 노인들도 더러 보였다.

“어쩌지, 어쩌지. 어쩐다.”

악마는 처음으로 이 젊은 단장의 긴장한 얼굴을 보았다.

잭은 몇 초 간격으로 회중시계를 꺼냈다가 다시 넣기를 반복했다. 천막 밖의 줄을 보고, 대기실의 단원들을 확인하고,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고.

"괜찮아 보여요? 저 어때요? 젠장, 입구 깃발이 조금 삐뚤어졌잖아. 지금이라도 가서 고칠까요? 혹시 저거 보고 실망해서 돌아가는 손님 봤어요? 마법으로 좀 펴주면 안 돼요?"

"시끄럽다."

"후우, 그래. 괜찮아. 괜찮죠? 괜찮아. ...아아, 사람들이 웃으면 어쩌지?"

"그럼 서커스 손님들이 안 웃기를 바라나?"

"그건 그렇네요."

악마는 더 이상의 위로도, 충고도 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에게 그런 재능은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계산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고집에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는지를.

본래라면 몇 명쯤 타락시키는 것으로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D는 수십 번이나 기적을 흉내 냈다. 인간을 뒤틀고, 짐승을 만들고, 자신의 형상까지 세상 위에 드러냈다.
악마치고는 지나친 투자였다.

첫 공연이 실패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된다.

'그렇다면....'

그는 옆에 선 잭을 곁눈질했다.

'계약은 그걸로 끝이다.'

굳이 더 끌고 갈 이유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을 유지할 이유도 없었다.

'뭐, 실패한 뒤에 생각해도 늦지는 않겠지.'

그때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남을 테니까. 저 시끄러운 바보와 지옥에서 함께할 영원이.

"좋아, 할 수 있어!"

잭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자신의 뺨을 철썩 두 번 때렸다.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 ...그러시겠지."

***

불이 꺼졌다.
첫 번째 액트가 시작됐다.

팔이 네 개인 곡예사가 두 기둥 사이를 우아하게 뛰어넘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공중 묘기를 선보였다.
매끄러운 곡예, 숨 막히도록 완벽한 동작. 가장 어려운 하이라이트에서는 일부러 살짝 떨어지는 척. 객석 여기저기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가, 곧바로 천막이 떠나갈 듯한 박수가 쏟아졌다.

기이할 만큼 거대한 차력사는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휘어 꽃다발을 만들어 객석으로 던졌다.
불 삼키는 사내는 횃불을 하나, 둘, 셋 집어삼키더니 온몸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두른 채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광대들은 잭이 밤새워 고쳐 쓴 농담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공시켰다. 물고기 가수의 노래가 끝났을 때에는 기립박수가 자그마치 6분이나 계속됐다.

잭은 커튼 뒤에 몸을 숨긴 채 객석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를 보는동안, 잭은 무대 뒤에 숨어 관객석을 관찰했다.

사람들의 미소를 확인하고 그의 웃음도 점점 짙어졌다.

...그러나 아직이다. 아직 최고의 쇼스토퍼가 기다리고 있었다.

...
...
탕, 탕, 탕.
전력 스위치가 차례차례 내려가는 소리. 화려하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천막 안이 천천히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탕.

가장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무대 한가운데를 새하얗게 비추었다.
그러나 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피날레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림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서 천장에 닿을 때 쯔음—

조명 밖, 완전한 어둠 속에서 눈 하나가 번쩍 떠졌다.
하나.
둘,.
열둘.
그리고, 백.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자라난다. 꿈뻑이며 관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시선. 어린 관객 하나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의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어째서인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기에.

웅성거림마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어둠이 움직였다.
검은 먹물이 살아 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흘러들었다.
바닥에서 솟구치고, 허공에서 역류하고, 서로를 집어삼키며 부풀어 오르더니, 거대한 꽃봉오리처럼 피어났다.
숫사슴의 뿔이 자라나듯, 번데기를 찢고 나온 파리가 축축한 날개를 펼치듯!

마침내 그 우화의 끝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

객석 전체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악마! 거대하고, 우아하고, 위대한 괴물!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그 소문의 주인공이 마침내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 있었다.

“하아....”

정작 그 스타 본인은 상당히 짜증을 참고 있는 중이었다.
무대 위. 조명 아래. 수백 쌍의 시선 한 가운데. 고작 이족보행 영장류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지옥의 친구들이 본다면 평생의 놀림거리가 될 광경이었다.

...뭐, 적어도 모두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 하는 꼴은 조금 마음에—

“와아아아***!”***

침묵은 환호성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대를 더 잘 보려고 몸을 내밀고, 손뼉을 치고, 휘파람을 불고, 서로의 어깨를 흔들었다.

“방금 그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봐, 여기 좀 봐! 날개 좀 더 활짝 펼쳐 봐!"

“.....”

악마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계약이 끝나는 날, 잭이라는 인간을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구덩이에 처박아 주겠다고.

***

"완전 대박이었어!"

쇼는 성공적이었다. 전례없는, 부정할 수 없는 성공이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좀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공연의 여운에 젖은 채 천막 근처를 서성였고, 유니콘 타기 체험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봉지당 1달러나 하는 식은 팝콘도 신기할 만큼 잘 팔렸다. 사람들은 와삭와삭 팝콘을 씹으며 조금 전 공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열띠게 떠들어댔다.

"헬렌, 부스마다 포스트-쇼 할증 요금 붙여줘! 음식은 30%, 게임 부스는 50%야!"

단장은 싱글벙글 웃으며 공터 이곳저곳을 재컬로프와 함께 방방 뛰어다녔다.

그날 밤, 잭은 축배를 들자고 선언했다.
'축배'라 함은 서커스 매대에서 쓰던 빨간 종이컵이요, 그 안을 채운 것은 유통기한이 두 달쯤 지난 루트비어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공연이었지만, 서커스를 다시 세우느라 들어간 자재비며 인쇄비며 각종 투자금을 계산하면 이번 공연의 순수익은 마이너스 23달러였다.

"자, 이것 좀 봐!"

잭은 창고에서 꺼낸 5갤런짜리 상업용 루트비어 통을 마치 백 년 묵은 프랑스산 와인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하게 들어 보였다.

"고급스럽지."

"단장님. 유통기한이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야! 완전 고급스럽지!"

잭은 으쓱하며 맥가이버 나이프를 꺼내더니, 한 손으로 솜씨좋게 통을 열었다.

"괜찮아, 괜찮아.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래도 이 정도는 먹여줄 수 있어, 내가."

아쉽게도 단장에게 대놓고 반박할 배짱을 가진 단원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잭이 악마와 계약한 인간인지, 혹은 악마 본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잭이 유별난 구두쇠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기준에서 유통기한이 겨우 두 달 지난 음료는 정말로 사치품 중의 사치품이었다. 이 귀한 것을 손대기가 아까워서 단원들에게는 유통기한 두 달 지난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다섯 달 지난 것을 마셨으니까.

단원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며 종이컵을 들었다. 그렇지만 통 속의 음료가 평범한 루트비어가 아닌 알코올이 함유된 하드 루트비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별 불평없이 즐기기 시작했다.

“그거 가운데에 두지 마, 우리는 손이 안 닿잖아.”

“피기, 앞접시 더 없어?”

“물개가 루트비어 마셔도 되나?”

“안되면 뭐 어쩔건데.”

“혀가 세 갈래가 되니까 음식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

배럴 옆에는 안주용 음식들이 즐비했다.
빨간 캐러맬을 입힌 사과, 가루설탕을 듬뿍 뿌린 빵튀김, 분홍색과 하늘색 솜사탕, 소세지를 넣은 옥수수빵.
잭의 서커스 타코는 신선한 야채라고는 하나도 없이 수상한 다진고기와 주황색 치즈만 들어간 녀석인데, 그것이 의외로 아주 맛있었다.

팝콘이 한 가득 든 바가지에는 흰 옥수수가 온통 노랗고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뜨거운 마가린을 흠뻑 부었다. 싸구려 마가린이라고는 하지만 아끼지 않고 듬뿍 뿌린 뒤 설탕과 소금을 한 움큼씩 뿌리자 놀랄 만큼 맛이 괜찮았다.

“...평범한 음식은 없나?”

“예?”

갑작스러운 D의 질문에 잭이 뒤를 돌아보았다.

“평범한 음식이요?”

“설탕과 기름이 없는 것.”

“사람은 설탕이랑 기름 없으면 죽어요. 설탕이 영혼을 만들고 기름이 육체를 만들거든요. 그것도 몰랐어요?”

“...넌 지금까지 이것만 먹고 살았나?”

“한 3년 정도는? 왜요?”

잭은 벌써 세 번째 콘도그를 우물거렸다.

“식용 색소, 옥수수, 튀김반죽, 유통기한 지난 설탕물만 먹고 살았다고.”

“가끔 땅콩도 먹어요.”

“가끔 땅콩도 먹는구나….”

D는 이 남자가 대체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 있는지 새삼 감탄했다.

“…그래서.”

잭이 문득 물었다.

“저 합격했어요?”

“음?”

“첫번째 기준이요. 당신이 그랬잖아, 첫 공연을 망하면 바로 지옥행이라고.”

검은 눈이 잭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멍투성이의 감자같은 얼굴. 그러면서도 당당하기 짝이 없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칭찬을 듣고 싶어 슬쩍 떠보는 어린 짐승 같았다.

“……그래.”

잭이 히죽 웃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자, 자. 여러분. 건배 한 번 합시다!”

그는 빨간 종이컵을 번쩍 들어 올렸다.

“미뤄진 지옥행을 위하여!”

벌써 잔뜩 취한 괴물 단원들은 저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으로 화답했다. 잭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모양이다.
그는 종이컵을 단숨에 비우고는 자연스럽게 D의 커다란 날개에 몸을 기댔다.

“D, 우리 다음엔 포토슛도 하면 어때요? 이번엔 너무 급히 준비하느랴 못했어.”

“싫어.”

“4달러 정도는 받아도 다들 아무 말 안 할거라고요!”

“난 내 방에 들어가서 마시겠다.”

“아니…. 잠깐만, 들어봐요. 6달러 66센트!”

“따라오지 마라.”

"비싸게 받는 대신 선착순 오백 명 한정."

"오백 명이면 한정도 뭣도 아니잖아."

질린 D는 커다란 루트비어 통을 한 손에 번쩍 들고 제 트레일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잭은 종이컵을 든 채 종종걸음으로 그 뒤를 따라붙었다.

***

"아, 그래. 아니면 개인 만남권을—"

끼이익.
트레일러 문이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열렸다. 낯선 향수가 둘의 코를 찔렀다.

"...오?"

아니, 잭에게는 익숙한 향이었다.
잭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비싼 콜롱을 쓰는 인간만큼은 좀처럼 잊지 않았다.

이탈리아제 정장. 거울처럼 윤이 나는 구두. 황금색 시계, 아주 두꺼운 시가.
마을에서 한 번 마주쳤던 남자다. 텔레비전이 서커스를 집어삼킬 것이라 장담하던 그 멍청이!

"뷰몬트 씨."

흥분에 겨웠던 잭의 미소가 순식간에 '서비스업용 미소'로 뒤바뀌었다.

"...이거 멋진 손님이 계셨군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정말 대단한 쇼였습니다."

신사는 대답 대신 모자를 벗어 가슴께에 대고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인정해야겠습니다, 지난번 드렸던 제 의견이... 틀렸던 것 같더군요."

"그렇죠? 저기,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서커스라는 업계도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군요."

"죽음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는 하지."

악마의 조롱 가득한 첨언을 잭은 농담이라는 양 웃어넘겼다.

" 저희 스타는 농담도 참 잘한다니까요! 하하, 다음 공연에서는 마이크 워크도 좀 시킬까 싶어요."

"죽인다."

"그래서, 기념사진이라도 한 장 찍고 싶으셔서 쳐들어오셨나요? 신사분처럼 품격 있는 손님께는 특별가 66달러 6센트에—"

“오, 아니요, 아니요.”

뷰몬트는 말을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고 있던 코트와 모자를 자연스럽게 잭에게 넘기며. 마치 벨보이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제안을 하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빅터는 잭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를 지나쳤다.
시퍼런 눈은 그 너머의 주인공에게 꽂혀있었다.

악마!

옥스퍼드 억양의 남자는 악마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천천히 관찰했다. 마치 비싼 조각상을 구경하는 외국인 관광객 같았다.
마침내 그는 악마의 정면에 멈춰 섰다.

“오, 신이시여....”

“그 표현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실례했습니다.”

표정에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아주 훌륭하군요.... 훌륭해요.”

그는 몸을 약간 숙여 악마의 발끝을 살폈다.

“참 사랑스러운 분장입니다. 이 예쁜 염소발 의족 없이는 키가 얼마나 되실까요? 그래도 칠피트는 족히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는 실크 장갑을 벗고 붉은 날개의 가장자리를 쓸었다.

“이거 꽤 정교하군요.”

날개가 움찔거렸다. 악마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갔다.
빅터는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혹은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방긋거렸다.

“그리고 이 분장.... 아주 인상적입니다. 오, 혹시 화장 밑은 백인인가요?”

“아닐걸요.”

“그건 조금 아쉽군요. 흠.... 이국적인 억양을 곁들이면 멋질 거예요. 프랑스 억양은 어떨까요? 관객들은 모로코 왕국을 좋아하거든요. ‘이국적인’ 국가 중에는 제일 교양이 있으니까.”

“제 친구는 그보다 더 아래쪽 출신이라서 말이죠.”

“남아프리카? 아아, 상관 없어. 출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객들에게는 프랑스 억양이라고 말해두고, 프랑스 시장에는 동유럽 억양이라고 말해두면 되니까요.”

“그럼 동유럽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고요?”

뷰몬트는 잭의 질문이 농담이라고 생각한 듯 예의바르게 웃어 넘겼다.

이름 없는 괴물은 고양이처럼 멍하니 앉아 남자의 귀찮은 손길과 지껄임을 무시했다. 이따금씩 귀와 꼬리가 움찔거렸으나,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잭은 알 수 있었다. 지금 악마의 인내심은 이미 상당히 닳아 있었다. 잘 알 수 밖에 없었다. 그 인내심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당사자가 잭 본인이니까.

‘빨리 안 말리면 뒤지겠는데, 이 인간.’

잭은 입술 안쪽을 깨물며 웃음을 삼켰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말리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빅터가 악마의 뿔 위에 손을 얹었다. 마치 비싼 경주마의 목덜미를 쓰다듬듯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한 손길이었다.

“분장 세션이 아주 끔찍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마는 반응하지 않았다.
빅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랑하게 말을 이어갔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끔찍한 분장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삶을!”

“.....”

“뷰몬트 미디어는 건조하고 서늘한 지역에 스튜디오를 서른 여섯개 지어두었습니다. 건설 중인 것을 합치면 마흔이 넘지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만 1만 달러는 들였고 말입니다.”

장갑 낀 반대쪽 손바닥이 뿔을 한 번 더 천천히 쓸었다.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만 촬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촬영분을 매일 오후마다 송출하는 거야. 페이는 지금과 똑같이 지급하고요. 끝없는 공연도 없고, 팝콘을 던지는 꼬맹이들도 없고, 샤워 부스 하나 없는 여행용 트럭도 없습니다.”

빙긋거리며 구경하고 있던 잭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셨다.

“뷰몬트 씨.”

“아주 우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빅터 뷰몬트는 듣지 못한 척 하며 한 손으로는 악마의 기다란 뿔을 느긋하게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마는 아무런 반응 없이 앉아있었다. 거대한 날개를 접고, 위엄 있는 뿔을 남의 손에 맡긴 채. 아무런 표정도 없이.

.....
...아니, 없는 것은 표정 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이 통째로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악마의 얼굴에 눈과 코와 입술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별로 좋은 신호 같지 않은데.’

“잭 씨, 저도 이미 계약된 남의 간판스타를 빼앗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뭐, 상관 없나.’

빅터는 아직 손에 닿지 않은 미래의 수익과 시가 향기, 그리고 자기 자신에 취해서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다.

“당신 업장이 말이지요. 꽤나.... 인상적이어서 말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안전 점검을 받으신 적이 언제지요?”

“가을에 받았습니다.”

“언제 가을 말씀이지요?”

“……가을에.”

“협박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이런 근무 환경에 노출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뷰몬트는 트레일러 바닥에 시가 재를 툭툭 털어냈다.

“조용히 협력하지 않으면 이 쓰레기장이 위반한 모든 안전 규정 하나하나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지옥 끝까지 고소장을 보내주지.”

“…….”

잭의 서커스를 폐쇄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였다. 편법이나 증거 조작도 필요 없는 일이다.
지금 당장만 해도, 헬렌이 핫도그 매대 하나를 통째로 잡아먹고 있는 풍경이 트레일러 창문 밖으로 비쳐보였다.

“지옥에 가게 되면 주소 송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뷰몬트 씨, 저희 계약은 제가 파기하고 싶다고 파기할 수 없어서요. 제 권한이 아니라.”

“꼴에 더 윗사람이 있나?”

“오, 위는 아니고 아래에 계십니다. 절대 권위를 거스를 수 없는 분과 계약을 했지요.”

뷰몬트의 회색 눈이 한 번 꿈뻑였다.
이윽고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

격식 있는 쓰리피스 슈트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웃음소리였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친애하는 동종업계 신사분, 주위를 좀 둘러보시죠.”

양팔이 트레일러 안을 크게 훑었다.
가장자리부터 떨어져내린 벽지, 휘어진 문틀, 좀벌레 먹은 커튼 사이로 숭숭 새어 들어오는 햇빛.

“이 목공풀과 수수깡으로 만든 회사에 나를 무시할 정도에 거물이 붙어있다고요?”

“농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웃긴 겁니다!”

악마는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듯이 말없이 등을 기대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당하는 일은 흔하지요. 특히 영세 자영업자 사기꾼들은 더더욱."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걸 들으면 그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걸요."

"그럼 얼간이라고 합시다. ...하! 그 지리멸렬한 것들, 다 미디어 업계로 흘러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서커스 업자나 등쳐먹는 촌스러운 놈들이 남아 있었군. 뒤쳐진 것도 정도가 있지!"

"음, 뷰몬트 씨?"

"제가 맞혀 볼까요? 분명 1피트짜리 흉물을 머리 위에 얹고 있었겠지요."

"뷰몬트 씨?"

"그치들은 키를 커보이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하니까 말이지. 톱햇 유행은 재작년에 끝났다는 뉴스를 놓친 모양이야!"

"빅터 뷰몬트 씨."

"첫 만남때에는 특히나 쓸데 없이 폼을 잡고, 목소리를 잔뜩 깔고—"

빅터는 문득 세상이 새까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덮쳐오는 그림자나 서서히 어두워지는 조명 따위는 없었다. 그저, 아주 갑작스럽게, 눈앞이 온통 새카맸다.

"……?"

그는 곧 이해했다.
눈앞을 거대한 짐승의 쩍 벌어진 아가리가 가득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

턱.

아가리가 닫혔다.

빅터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던졌다. 머리카락 몇 올이 송곳니에 스치며 잘려 나갔다.
키가 1인치만 더 컸더라면 두개골째 깨졌을 것이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쪽 다리가 걸렸다.

콰득.

"아아악!"

빅터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광택 나는 구두 한 짝이 악마의 송곳니에 꿰인 채 대롱거리고 있었다.

“잭!”

남자가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이것 좀 치워!”

“그러게 하지 말라니까요.”

“치우라고!!!”

잭은 마지못한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 들었다. 시가였다. 뷰몬트가 비명을 지르다 놓친, 아직 절반 이상 남은 쿠바산 시가.

“흠.”

잭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입에 물고 한 모금 빨아들였다. 그러고는 바로—

[콜록**,** 콜록***!]***

“젠장할.”

눈물까지 찔끔 흘리며 연기를 내뿜었다.

“이런 걸 돈 주고 피운다고?”

“잭!!!”

“뭐요.”

“괴물부터 치우라고!”

“그랬지, 참.”

잭은 시가를 손가락 사이에 낀 채 악마 앞에 쪼그려 앉았다.

“D씨, 한 번만 봐줍시다. 네?”

“다리, 내 다리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잭은 시가를 빙글 돌려 악마의 거대한 아가리에 물려주었다.

“자.”

씩씩거리던 거대한 주둥이는 시가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케헥*!]

혀를 길게 빼고 불쾌한 기침을 쿨럭쿨럭 내뱉었다.
뷰몬트의 다리와 찢어진 바짓조각이 새총을 타고 날아가는 땅콩처럼 퉤 내뱉어졌다.

“큭…!”

남자는 제 허벅지를 부여잡고 바닥을 나동그랐다.

“그치,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이거 진짜 맛없다니까?”

“허억, 허억, 허억….”

뷰몬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앞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하고 검은 것은 나타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었다. 검은 짐승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악마 역 배우’가 태연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인상을 찡그리고, 잔기침을 쿨럭거리는 채로.

“저 망할 생물은 대체 뭐야?!”

고함을 칠 여유를 되찾자마자 뷰몬트가 소리쳤다.
그제서야 잭은 눈치챘다. 신사의 잘 벼려진 옥스포트 억양은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있었다. 대신 카우보이처럼 걸쭉한 텍사스 사투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악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인상을 찡그리고 입을 쩝쩝거릴 뿐이었다.

“…입 안에서 끔찍한 맛이 나는군.”

“시가 맛이요, 뷰몬트 씨 맛이요?”

“둘 다.”

거센 숨을 몇 번 더 몰아쉰 뒤, 뷰몬트는 낡은 의자를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비싼 정장은 여기저기 올이 나가 있었고, 바지 한쪽은 피에 젖어 있었다. 반짝반짝 광택을 내던 구두에는 검은 침이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었다.

“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자세를 바로 세웠다. 일어선 남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셔츠 깃을 매만지고 넥타이를 똑바로 고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챙겨입은 것은 세일즈맨의 깔끔한 미소였다.

‘저 부분은 존경스럽네.’

잭이 생각했다.

“ ...좋습니다. 아무래도....”

몸을 추스린 뷰몬트. 그는 머리를 손끝으로 빗어 넘기며 D를 마주 보았다.

“아무래도 제가 영업을 잘못한 것 같군요.”

회청색 눈이 D의 옆에 선 구부정한 사내에게로 향했다.
재킷과 조끼, 정장바지의 색이 하나같이 따로 노는 사내. 깡마른 몸에 팔다리만 길쭉해서 원숭이를 연상시키는 청년.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억양과, 그보다도 더 교양 없는 말투.

뷰몬트는 치밀어 오르는 눈살을 간신히 억눌렀다. 잭. 정말이지, 자신이 혐오하는 모든 것을 한데 뭉쳐놓은 것 같은 사내였다.

“우리 특별한 스타께서는 전담 매니저님과 사이가 돈독하신 모양이군요.”

“그래요? 처음 알았네.”

“죽어.”

“다시 제안 드리겠습니다.”

뷰몬트는 두 사람의 말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 둘 다 고용하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아니라 귀를 다치셨을까요?”

“잭 씨라고 했던가요. 당신, 나름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단장으로서는 모르겠지만..... 조련사 쪽으로는.”

D가 불쾌하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별로 설득력 있는 항변은 아니었다.

“저희 산하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저..... 자유분방하신 스타의 전담 매니저가 되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싫은데요.”

“프로듀서로서 크레딧도 받게 되실 겁니다.”

“싫다니까요.”

“회사 차로 최신식 포드도 지급하겠습니다. 이 낡은 버스와는 승차감부터 차원이 다르지요.”

“전 오프로드 체질이라.”

“소매 길이가 맞는 정장도 몇 벌 맞춰드려야 겠고요.”

“지금 것도 맞는데요?”

잭은 축 늘어진 소매를 휘둘렀다. 찰싹, 소매 끝이 뷰몬트의 콧대를 정확히 후려쳤다.

“ …….”

“봐요. 길이가 딱 적당하죠.”

뷰몬트는 눈을 감고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어떤 기회를 내던지고 있는지 자각이 없으시군요.”

“뷰몬트 씨는 방금 내던져졌었다는 자각이 없으시고요.”

“…….”

“뭐, 아무튼.”

잭은 회색 정장의 남자를 더 상대하지 않고 트럭 문을 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터를 우스꽝스럽게 흉내 낸 듯한 몸짓이었다.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실래요? 저랑 D는 지옥의 이름으로 계약한 사이라서 말입니다.”

술 취한 단원들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어렴풋이 흘러들어왔다.

“듣기로는, 환불 규정이 아주 까다로운 동네라더군요.”

잭

외형

원숭이처럼 말랐다. 골반이 작고 팔다리가 길쭉한데, 잘 먹고 자라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몸이 성장을 겨우 따라잡은 것처럼 보인다.
한시도 가만있지를 못해 이리저리 손을 뻗고, 몸을 기대고, 고개를 갸웃하는 버릇 때문에 더더욱 어딘가 덜 자란 소년 같다. 드물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의외로 키가 크다.

옷은 하나같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재킷은 어깨가 맞지 않고 소매는 조금 짧으며, 셔츠와 조끼, 바지와 넥타이는 전부 다른 사람이 각기 다른 시기에 골라준 것처럼 따로 논다. 서커스 단장이라는 직업 덕에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입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사실 의도한 게 아니다.

덧니가 심하다. 자주, 크게 웃기 때문에 더더욱 눈에 띈다.
굽슬굽슬한 머리카락은 원래 새까맸지만, 햇빛에 바래서 갈색에 가까워졌다. 눈 역시 비슷한 색상.
피부는 전형적인 쿠바인의 올리브빛. 얼굴은 화장 덕분에 눈에 띄지 않지만, 가슴깨와 손등에 주근깨가 가득하다.

소개

쿠바 출신의 서커스 단장. 수전노이자 능글맞은 사기꾼이며, 말 한마디로 악마조차 단원으로 영입하는 타고난 쇼맨이다. 현실적인 생존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서커스'가 걸린 순간만큼은 상식을 잃는다.

그의 주요 가치관은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비롯되었다.
오랫동안 기른 애완 토끼가 병들자, 박제사였던 어머니는 토끼를 박제로 만들어 전시장에 세워 두었다.

"무덤에서 썩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라도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 꽤 멋진 장식품이 되는 법이란다."

전시장 속의 시체들을 바라보며 자라난 잭은, 슬프거나 힘든 일들을 모두 웃음거리로 만듦으로써 회피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 가치관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관객들에게도 강요하는 고집적인 면이 있다.

뷰몬트

등은 늘 곧고 턱은 자연스럽게 들려 있다. 사람들은 으레 그를 장신이라고 착각하지만, 막상 가까이 서 보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 키보다 존재감이 먼저 기억에 남는다.

미남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이목구비가 잘 다듬어지고 얼굴은 완벽한 대칭에 가깝다. 악수를 청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얼굴.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잘생겨서 좋다’며 그에게 사랑에 빠진 숙녀는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다.

갈색 머리카락, 회색에 가까운 파란 눈.... 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래 머리는 고운 금발이다.
60년대 기준으로 ‘남자답고 신뢰가는 얼굴’과는 거리감 있는 인상.
관자놀이나 머리칼 끝에 비치는 희미한 금빛이 마치 새치처럼 보인다.

재컬로프는 사실 원래 잭의 애완 토끼였음
토끼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는데, 양아버지가 그걸 박제로 만들어서 전시해두는걸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 양아버지(좀 쓰레기 인간임)는 'ㄴㄴ이게 무덤에서 썩는것보다 더 좋은거다. 이제 시체가 아니라 장식품이 된 거잖아. 멋있지? 뭐든 전시장과 액자뒤에 두면 멋있잖아'뭐 이런소리를 했고 이게 잭의 서커스/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근간
>>>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재컬로프'는 결국 악마가 멋대로 움직이게 한 가짜일 뿐 줄곧 결국 움직이는 시체였을 뿐임을 깨닫는걸로 각성

1. 기:

서커스 단장 ‘잭’은 몰락해 가는 서커스를 되살리기 위해 악마와 계약하고, 인간을 괴물로 바꾸어 서커스 단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서커스를 다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올려놓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2. 승:

잭의 서커스는 점차 유명세를 얻고, 다양한 협력자의 도움 속에서 더욱 큰 무대와 더 많은 관객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커스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하며 경제적,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다양한 단원 및 고객들과의 에피소드

3. 전:

서커스가 거대한 쇼로 성장할수록 잭은 자신이 추구하던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사람들에게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기회를 주려 했던 서커스가 어느 순간부터 현실을 잊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잭은 자신이 믿어온 '쇼'의 의미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협력자였던 뷰몬트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4. 결:

긴 대립 끝에, 잭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서커스의 의미를 되찾는다. 그러나 서커스를 구하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고 죽음을 각오한다.

하지만 악마와의 계약에서 영혼을 바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잭은 악마에게 영혼을 바침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악마로 거듭나며, 죽음이나 세월에 구애받지 않고 영원히 서커스를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